

永樂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朝鮮 傳來와 流布*

A Study on the Import to Chosun and It's Distributions of the Saseodaejeon Published by Yongle Emperor of the Ming Dynasty

송 일 기 (Il-Gie Song)**

목 차

- | | |
|-----------------------------|-----------------------|
| 1. 緒言 | 3.1 世宗代 〈四書大全〉의 傳來 |
| 2. 永樂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編纂 및 現傳本 | 3.2 世宗代 〈四書大全〉의 刊行 |
| 2.1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編纂背景 | 4. 朝鮮時代 〈四書大全〉의 板本 流布 |
| 2.2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現傳本 | 4.1 朝鮮板 〈四書大全〉의 流布 現況 |
| 3. 朝鮮 世宗代 〈四書大全〉의 傳來 및 刊行 | 4.2 內府刻本 覆刻 系統의 流布 分析 |
| | 5. 結言 |

초 록

이 연구는 명나라 영락제의 명으로 편찬한 〈사서대전〉의 유포와 우리나라에 전래 된 이후 복각 간행된 판본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명나라 영락제가 황위를 찬탈한 이후 태조의 유훈을 받든다는 명분을 들어 胡廣 등에게 편찬하도록 칙명을 내리자 불과 10개월만인 영락 13(1415)년 9월 완성되었다. 그 후 명나라 內府에서 간행한 大全本은 세종 대에 모두 3차에 걸쳐 전래되었다. 세종은 명나라에서 입수된 제1차 전래본을 저본으로 세종 9-10(1427-1428)년 사이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3도 지방에서 각각 분담하여 판각을 완료하였다. 조선에 전래된 이후 유포 현상을 조사 분석한 결과, 명 大全本을 그대로 복각한 판본이 조선에서 대략 18회 이상 간행되었으며, 그 중 현재 50종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현존본 50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임란으로 서적이 급속도로 망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보충하기 위해 주로 서적의 수요가 시급했던 경기와 경상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간행 보급되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ABSTRACT

When the Yongle Emperor of the Ming Dynasty seized the power as the emperor of China, he issued a royal order to Hokwang and others, to publish a book entitled "Sambudaejeon," in the name of following the death-bed instruction of Taizu. The book was completed no less than 10 months after the order was issued in September 1415(Yongle 13). With the first copy imported from the Ming Dynasty as the original script, *Sambudaejeon* was engraved on wood by going sharing with 3 provinces including Gyeongsang-do, Jeolla-do, and Gangwon-do, during the period of 1427~1428(Sejong 9~10). The result of surveying and analysing the distribution of the Ming Dynasty was imported to Chosun, shows that the engraving copy of the original script from the Ming was published more than 18 times in Chosun, among which only 50 types are identified to exist current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se 50 existing types, This status of publication suggests that the books were intensively published and distributed in Gyeonggi and Gyeongsang provinces where the demands for the books were urgent, to meet the needs when the books were rapidly lost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키워드: 영락제, 호광, 삼부대전, 사서대전, 논어대전, 맹자대전, 대학대전, 중용대전, 세종, 주자소, 성균관, 감영
The emperor Yong Le, Hokwang, Sambudaejeon, Saseodaejeon, The Confucian Analects Daejeon, Mencius Daejeon, Daehakdaejeon, Jungyongdaejeon, Sejong, Typefoundry, Seonggyungwan National Academy, Gamyong

* 이 논문은 2013년 7월에 중국 古宮博物院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논문접수일자: 2014년 1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2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2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97-116,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097]

1. 緒言

淸初에 顧炎武는 '大全本'이 나오자 經說이 망했다고 酷評하였으나, 이러한 중국의 학문적 분위기와는 달리 오히려 당시 조선에서는 <四書大全>의 간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종 대에 명나라에서 이른바 <三部大全>이 적어도 3차례 이상 전래된 이후 조선에서는 곧 바로 이 중에 처음으로 전래된 大全本을 저본으로 간행하여 보급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세종은 <삼부대전>이 260권 120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기 때문에 이를 慶尙道, 全羅道, 江原道 등 3도에서 分擔하여 刊刻하도록 하였다. 이 중 <사서대전>은 강원도에서 주관하여 板刻하였으며, 刊刻이 완료된 이후 冊板은 모두 鑄字所로 移運하여 보관하면서 서적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쇄하여 보급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는 동안 왕궁 내의 주자소에 보관하였던 책판은 모두 掠奪되거나 燒失되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壬亂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여 주자소의 책판 뿐만 아니라 인쇄에 사용되었던 금속활자를 비롯하여 조선전기에 인쇄되어 왕궁의 장서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수많은 왕실 서적과 민간의 서적 까지도 약탈되었다.

전란이 끝난 이후 왕실과 민간의 교육기관에 서적이 부족하여 학습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조정에서는 군인을 양성하던 訓練都監의 병졸들을 동원하여 다양한 서적을 출판하였는데, 여기에 <사서대전>도 포함되어 있으나 木活字로 인쇄하여 보급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대 간행한 初

刊本을 저본으로 처음으로 복각 간행한 기관은 고급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였던 成均館이었다. 성균관에서는 광해군 1-2(1609-1610)년 사이에 <사서대전>을 간행하여 당시 부족했던 학습서적을 우선적으로 충당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임란 이후 서울에 소재하였던 성균관에서 처음으로 <사서대전>이 간행된 이후 咸鏡道를 비롯하여 平安道, 慶尙道, 全羅道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종대 명나라에서 전래한 <사서대전>이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어떠한 유포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다만 종래에 <사서대전>의 판본에 관한 논고가 몇 편이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방대한 실물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연구대상인 <사서대전>이 명나라 永樂帝의 勅命으로 內府에서 편찬 간행된 배경을 살피고, 한편으로 우리나라로 3차례 걸쳐 전래되어 이를 저본으로 세종 때에 初刊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임란 이후 전국적으로 간행 보급되었던 실물 자료가 유포되었던 전체적 간행 현황을 파악하여 중국 명나라 내부에서 간행된 宮廷本이 조선에 끼친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2. 永樂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編纂 및 現傳本

2.1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編纂背景

본래 <四書>는 宋代 朱熹가 『論語』와 『孟

子』를 集註하고 『大學』과 『中庸』에 章句를 成篇한 이후 성립된 개념으로 이른바 ‘四大經書’를 지칭하는 것이다. 주희가 사서를 성편한 이후 비로소 성리학의 기본경전으로 尊崇되었으며, 한편으로 과거시험의 핵심교과 교재로 자리 잡게 되면서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제국으로 널리 유포되어 學習되었다. 그 후 明代 초기 永樂帝가 胡廣 등에게 하명하여 〈五經大全〉과 〈四書大全〉, 그리고 〈性理大全〉 등 이른바 〈三部大全〉을 편찬케 하였는데 이때 〈사서대전〉도 함께 완성되었다. 영락제는 그의 조카인 建文帝를 시해하고 황제에 즉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는 靖難으로 황제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보할 의도로 시급히 〈永樂大典〉과 〈三部大全〉의 편찬을 하명하였다.

明 太祖 朱元璋은 건국초기부터 변방의 통치와 皇子의 분쟁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25명에 이르는 왕자를 주요지역에 變王으로 책봉하는 分封策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父王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등극하게 된 건문제는 즉위 초기부터 藩王을 견제할 의도로 黃子澄(?-1402)과 方孝孺(1357-1402) 등의 건의에 따라 變王을 제거하는 削藩策을 실시하여 결국 靖難을 촉발시켰다. 당시 北平에 머물고 있던 燕王[永樂帝]은 명 태조의 遺訓에 따라 ‘亂臣賊子’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정변을 통해 황제에 등극하였다.

이러한 정변의 중심에는 측근인 姚廣孝(道衍, 1335-1418)가 있었는데, 그는 정변을 도모

하여 영락제의 등극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는 본래 僧侶로서 佛道를 수행하는 한편으로 朱子學을 학습하고 당대 학자인 高啓(1336-1374)와 宋濂(1310-1381) 등과 교류하였으며, 또한 道士 席應眞에게 陰陽術을 익히고 兵法를 통달한 인물로 북평 慶壽寺의 주지를 지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요광효는 영락제의 모친 高皇后의 사후 追善을 명분으로 연경에 와서 燕王과 운명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다.

정변 이후 건문제의 측근으로 당대 名儒인 方孝孺를 회유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려하였으나, 그가 황제의 勅書 작성을 거절 하자 방효유의 10족과 문인 등 873인이 사형에 처해지는 등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여 많은 인제가 손실되었다. 그리하여 영락제는 靖難으로 등극한 비윤리적 행위를 정당화하여 제왕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목적과 洪武帝의 정책을 계승하여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施政策을 발표하여 대규모의 서적 편찬사업을 추진하였다.¹⁾

그리하여 영락제는 부왕 흥무제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翰林院을 內閣 機務의 중심으로 삼고, 당시 修撰 胡廣, 編修 楊榮, 楊士奇, 金幼孜(1368-1431), 胡儼 등을 발탁하고, 解縉(1369-1415)과 黃震을 文淵閣에 入直하여 顧問에 對比케 하는 한편으로 〈三部大全〉을 편찬하여 널리 보급하도록 칙명을 내렸다. 마침내 永樂 12(1414)년 11월 詔書를 내려 胡廣 등으로 하여금 〈삼부대전〉을 편찬

1) 그런데 〈三部大全〉보다 앞서 명나라에서 편찬된 〈永樂大典〉은 ‘五運論’을 제시하여 왕조 계승의 정당성을 신유학적 의미나 도덕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주역의 相生論과 相剋論을 근거로 합리화하였다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權重達, 『性理大全의 形成과 그 影響』, 『中央史論』 제4집 참고).

할 것을 명하여 이듬해 13년 9월에 완성되자, 禮部로 하여금 간행하여 천하에 頒布토록 하였다.²⁾ 그러나 26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木板에 판각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서적의 간행은 영락 13(1415)년 9월 이후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1415년은 楊榮 등이 善書한 精書本만을 완성하여 황제에게 進上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2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現傳本

영락제의 칙명으로 1415년에 편찬된 〈四書·五經大全〉은 관학의 교재로 채택되어 학습하거나 과거시험의 선발 교재로 사용됨으로서 다른 註疏本은 儒子들에게 크게 주목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 유학의 발전이 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하여 大全本이 보급된 이후 淸초 顧炎武 등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과거시험은 〈四書〉가 중심이 되고 〈五經〉은 선반에 방기되었기 때문에 유자들은 모두 사서만을 연구하였던 폐단을 보였다. 그리하여 대전본이 보급된 이후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³⁾

이러한 비판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에서도 보급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宣祖實錄』에 보면 奇大升(1527-1572)이 경

연에서 선조에게 말하기를 “영락제가 『四書·五經大全』과 『性理大全』을 편찬하도록 명하였는데, 朱子의 본의를 모르고 撰修한 것이 많고, 『詩』·『書』·『論語』의 輯註는 先儒의 논의와 어긋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세종께서 만년에 汲주는 보지 않았고, 〈四書〉의 경우 大文과 大註本만을 인출하여 보셨는데, 弘文館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소신이 재작년에 玉堂에 있을 때 이 책을 藏書閣에서 찾아내었습니다. 상께서 한번 훑어보시도록 啓達한 뒤에 곧 이 책을 올릴 생각이었으나, 아직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논어』의 汲주는 곧이 보아야 할 것이 아니니 한번 훑어본 뒤에 곧 大문·대주의 책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⁴⁾ 이러한 기대승의 견해로 보아 대전본을 간행하여 보급한 바 있는 세종대에 이미 득실의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락제의 칙명으로 편찬된 사서대전인 범례에서 비록 사서대전은 吳眞子の 『四書集成』과 倪士毅(1303-1348)의 『四書輯釋』을 토대로 朱子의 주해를 보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중국 명말淸초의 명유인 顧炎武(1613-1682)는 영락제의 명으로 찬수했다고는 하나 사실은 찬수된 것이 아니며, 사서대전은 『四書輯釋』을 표절하고 약간의 증보와 산삭했을 뿐이라고 혹평하였다.⁵⁾ 본래 『사서집석』은 예사

2) 成祖實錄, 永樂12年(1414) 11月 甲寅, 命行在翰林院學士胡廣侍講楊榮金幼孜, 修五經四書大全, 十三年九月告成, 成祖親製序, 弁之卷首, 命禮部刊賜天下.

3) 이러한 논의에 대해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李康範, 『明代 五經大全의 纂修의 배경과 經學史的 意義』, 『中國語文學論文集』 74, 2012.

4) 宣祖實錄, 宣祖2年(1569) 4月19日, 永樂皇帝命撰集四書五經及性理大全, 則不知朱子之意, 而撰修處, 多有之. 詩書論語輯註, 與先儒之論, 乖戾處, 亦多有之. 我世宗晚年, 不見輯註, 凡四書, 只印大文大註而覽之. 弘文館亦有此冊, 小臣往在去年, 冒忝玉堂, 搜得此冊於藏書閣, 將欲啓達, 而自上一度覽遍之後, 卽以此冊進之計料, 而未及矣. 論語輯註, 不須見之, 一度覽遍之後, 卽以大文大註冊, 見之爲當矣.

5) 顧炎武, 『日知錄』, 〈四書五經大全〉條 參見.

의의 스승인 陳櫟(1252-1334)의 『四書發明』에 胡炳文(1250-1333)의 『四書通』 등 제설을 취사하여 1341년 건양에서 『增訂四書輯釋』(20권)을 완성한 이후 2년 동안 이를 증수하여 『增訂輯釋章圖通義大成』이라 이름한 사서의 주석서이다. 그리고 청대 편찬된 『四庫全書總目』의 提要에서 원대는 스승에게 진수받은 바를 돈독히 지키면서 스스로 밝힌 바가 있으나 이는 모두 자신의 심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명대에는 정난 이후로 원로 유생들이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에 호광 등도 함께 논의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에 옛 책들은 표절하여 황제의 조서에 부응한 것이라고 폄하하였다.⁶⁾

이러한 후대의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는 <三部大全>은 胡廣(1370-1418) 등 39인이 참여하여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불과 10개월 만에 편찬을 완성하였다. 조선에 수입되어 온 <삼부대전>은 모두 260권 120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⁷⁾ 장책에 따라 冊數가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다소 혼동되고 있다. 다음은 초간본을 기준으로 각 대전본의 권책 편성체제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삼부대전>은 모두 260권 120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 <사서대전>은 『大學或問』과 『中庸或問』을 포함하여 38권 1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명나라 內府의 인쇄기관인 敬殿에서 인쇄한 서책 중 현재 한국과 중국에 현존하는 판본은 <표 2>와 같다.

<표 2>는 영락제 때 간행한 大全本이 한국과 중국에 현존하고 있는 板本을 조사하여 전체 傳存 현황을 밝힌 것이다. 이 중 한국에 현존하는 서적은 조선 세종 대에 3차에 걸쳐 입수한 판본으로, 현재 藏書閣에 소장하고 있는 『詩傳大全』과 『禮記大全』의 卷首面에는 「欽文之璽」라는 內賜印이 날인되어 있고, 卷末面에는 「朝鮮王寶」가 날인되어 있어 중국 황제가 하사한 서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영락제의 명으로 편찬이 완료되자 이를 판각하기 이전에 精書本을 만들었는데, 현재 중국의 북경대도서관 등에는 『論語大全』, 『孟子大全』, 『中庸或問』, 『書傳大全』의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精

<표 1> 內府刻本 <三部大全>의 編成體制

區分	四書大全				五經大全					性理大全
	論語	孟子	大學(或問)	中庸(或問)	詩傳	書傳	周易	禮記	春秋	
卷數	20	14	1+(1)	1+(1)	20+(2)	10+(1)	24	30	37+(4)	70
冊數	7	7	1+(1)	1+(1)	10+(2)	10+(1)	12	18	18+(4)	27
合計	38卷 18冊				152卷 75冊					70卷 27冊

6) 『四庫全書總目』, <四書集註大全提要> 參見.

7) 世宗實錄, 世宗8年(1426, 宣德1) 11月24日. 進獻使僉摠制金時遇, 奉勅而回, 上出迎于慕華樓如儀. 其勅曰朝鮮國王, 今賜王五經·四書及性理大全一部 共一百二十冊.

〈표 2〉 永樂 內府刻本 〈三部大全〉의 韓·中 傳存現況

國家	分類	書名	板種	板式事項				所藏處	備考	
				邊欄	半郭(cm)	行/字	魚尾			
韓國	四書類	論語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6.1×16.8	10/22	大黑口;內向黑	誠庵博 國立圖	宋榮晦印(1-249) B21239-18	
		孟子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6.4×18.0 25.5×16.9	10/22	大黑口;內向黑 '廣運之寶'	奎章閣 國立圖 " 高麗大	2747, 4114 古朝09-리9 B2古1-34-11 古朝09-리9B2 六堂貴49-1-8	
		大學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5.3×16.8	10/22	大黑口;內向黑	奎章閣	541	
		中庸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5.3×16.8	10/22	大黑口;內向黑	奎章閣 高麗大	2177 六堂貴-53	
	五經類	詩傳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6.7×16.8	10/22	大黑口;內向黑	藏書閣 誠庵博	欽文之璽 1-67	
		書傳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5.4×16.9	10/22	大黑口;內向黑	高麗大	육당귀75-1-7	
		禮記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7.1×18.0	10/22	大黑口;內向黑	藏書閣	欽文之璽	
		周易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5.6×16.9	10/22	大黑口;內向黑	誠庵博 高麗大	1-22 육당귀76-0	
	儒家類	性理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6.4×16.8	10/22	大黑口;內向黑	誠庵博 高麗大	1-151 육당귀51-1-18	
	儒家類	性理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5.5×16.8	10/22	大黑口;內向黑	高麗大 國立圖 " 奎章閣	육당귀47-1-18 D11252-91 B21252-18 25015, 古1343-3	
	中國	四書類	論語大全	精寫本	四周雙邊	26.2×18.9	10/22	大黑口;內向黑	北京大 圖書館	楊榮(明) 寫 卷8-10,13-14 存
			孟子大全	精寫本	四周雙邊	26.4×18.9	10/22	大黑口;內向黑	北京大 圖書館	楊榮(明) 寫 卷1-4 存
			孟子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6.4×18.0	10/22	大黑口;內向黑	江西省 圖書館	欽文之璽
大學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7.5×17.1	10/22	大黑口;內向黑	吉林省 圖書館		
中庸或問			精寫本	四周雙邊	27.5×17.1	10/20	大黑口;內向黑	國家 圖書館	唐潤熙(p.381)	
四書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7.0×18.0	10/22	大黑口;內向黑	天津市 圖書館	全卷存	
中國	五經類	詩傳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6.7×17.9	10/22	大黑口;內向黑	雲南省 圖書館	表章經史之寶	
		書傳大全	精寫本	四周雙邊	26.5×19.0	10/22	大黑口;內向黑	北京師 範大圖 書館	楊榮(明) 寫	
		書傳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7.0×18.0	10/22	大黑口;內向黑	湖南省 圖書館	朱點	
		周易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6.7×18.0	10/22	大黑口;內向黑	河南省 圖書館	欽文之璽	
		禮記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7.1×18.0	10/22	大黑口;內向黑	天一閣 圖書館	徐時棟跋	
		五經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7.0×18.0	10/22	大黑口;內向黑	南開大 圖書館	115卷存	
		五經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7.0×18.0	10/22	大黑口;內向黑	天津市 圖書館	135卷存, 錢唐丁氏正修堂藏書	
儒家類	性理大全	木板本	四周雙邊	26.7×17.8	10/22	大黑口;內向黑	浙江大 圖書館	全70卷存		

書本은 당시 편찬자로 참여한 楊榮⁸⁾ 등이 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한국에는 영락제의 명으로 편찬 간행된 서적이 일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대체로 조선시대 세종 재위기간에 중국으로부터 3차례나 전래한 것으로 『世宗實錄』에 보이고 있다.

3. 朝鮮 世宗代 〈四書大全〉의 傳來 및 刊行

3.1 世宗代 〈四書大全〉의 傳來

중국 명나라에서 〈四書大全〉이 편찬되어 간행된 이후 불과 3년이 지난 세종 1(1419)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그 후 세종실록에는 세종 8(1426)년과 세종 15(1433)년에 걸쳐 추가로 두 차례 더 입수되어 세종 대에 모두 3차에 걸쳐 수입된 사실이 보이고 있다.

먼저 제1차 전래는 세종 1년 12월 7일에 〈三部大全〉이 전래된 것으로 실록에 보이고 있다. 당시 敬寧君 李裊, 찬성 鄭易, 형조 참판 洪汝

方 등이 북경에서 명나라 황제 영락제가 하사한 麒麟·獅子·福祿과 隨現寺와 寶塔寺의 상서로운 그림 5軸과 〈삼부대전〉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영락제가 李裊를 榻殿 위에 오르게 하여 자중하고 근신하여 글을 읽어야 할 것이 다 말하고 御製序文이 붙은 새로 편찬 간행한 『性理大全』과 〈四書·五經大全〉을 하사하였다.⁹⁾

이 실록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敬寧君 李裊가 영락제로부터 하사받은 〈삼부대전〉본은 御製序文이 들어 있는 판본임을 알 수 있으나, 이는 국가적 공식 요청에 의해 전래되었다기보다는 개인적 친분에서 경녕군에게 頒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2차 入手本은 명나라에서 온 사신 尹鳳이 귀국할 때 세종이 미리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金時遇가 1426년에 수령해 온 것이다. 당시 세종실록에 보면 進獻使 金時遇가 칙서를 받들고 돌아오자 世宗이 몸소 모화루에 나가서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칙서에는 임금에게 〈四書·五經大全〉 및 『性理大全』 1부 도합 120책과 『通鑑綱目』 1부 도합 14권을 내려 주니 서책이 이르거든 수령할 것을 기록하고 있

8) 楊榮(1371-1440)은 명나라 福建 建安 출신으로 字는 勉仁이고, 初名은 子榮이며, 諡號는 文敏이다. 建文 2(1400)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翰林院編修에 임명되었다. 永樂帝(成祖)가 등용하여 文淵閣에 입사하였으며, 이때 이름을 楊榮으로 고쳤다. 영락제의 北征에는 항상 수행하여 중요한 군무를 맡았으며, 후에 文淵閣大學士에 올랐다. 영락 23(1425)년 원정에 나섰다가 군대를 이동시키던 도중 영락제가 죽자 金幼孜와 함께 비밀리에 췌병하면서 초상을 발설하지 않았다. 이후 仁宗이 즉위하자 謹身殿大學士에 오르고, 工部尙書를 지냈다. 宣德 1(1426)년 漢王 朱高煦가 반란을 일으키자 황제의 친정을 주청했으며, 正統 3(1438)년 少師로 승진했다. 네 명의 황제를 섬기면서 지모와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楊士奇, 楊溥와 함께 이른바 '三楊'으로 불리면서 국가원로로서 정계의 예우를 받았다. 저서에 『後北征記』와 『楊文敏集』이 있다

9) 世宗實錄, 世宗1年(1419) 12月7日, 敬寧君(李)裊, 贊成鄭易, 刑曹參判洪汝方等, 回自北京, 皇帝就賜麒麟·獅子·福祿, 隨現寺·寶塔寺, 祥瑞之圖五軸, 福祿似驢而高大, 頸長抗, 白質黑文, 人不能名, 帝自名之曰福祿云, 皇帝待裊甚厚, 命禮部照依世子(李)裊朝見時例接待, 一日, 詔裊陞殿上, 帝降御座, 臨立裊所跪處, 一手脫帽, 一手摩髻曰: “汝父汝兄皆王, 汝居無憂之地, 平居不可無所用心, 業學乎, 業射乎, 宜自敬慎讀書, 特賜御製序新修性理大全·四書五經大全”.

다. 이 일은 중국 사신 尹鳳이 귀국할 때 세종이 〈사서·오경대전〉·『성리대전』·『宋史』 등의 서적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김시우가 명나라에서 돌아 올 때 선덕제가 특별히 하사한 것이다.¹⁰⁾

이처럼 제2차 입수본은 세종의 요청에 의해 명 황제 宣德帝가 使臣을 통해 공식적으로 傳授한 것이다. 실록의 내용으로 보아 제2차 입수본의 전래에는 명나라 사신 尹鳳의 주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신 윤봉은 본래 조선인으로 태종 때 명 황궁에 환관으로 진현되어 내관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조선 태종에서 世祖에 이르는 시기에 전후 13차례나 조선을 방문하면서 조선 왕실의 주요 정보를 수집하여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전래본이 현재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의 『詩傳大全』과 『禮記大全』의 앞면에는 「欽文之璽」라는 명나라 皇帝印이 날인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세종의 御寶로 보이는 「朝鮮王寶」가 찍혀 있어 내사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중국의 江西省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孟子大全』에도 「欽文之璽」라는 동일한 內賜印이 安寶되어 있어 황제가 공식적으로 하사한 서적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로 판단된다.

그리고 『世宗實錄』에 세종 15(1433)년에 한 차례 더 大全本이 입수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선에 3차로 입수된 서적

에 해당한다. 실록의 내용을 보면 조선의 子弟들을 북경의 국학이나 혹은 遼東의 鄉學에 보내서 학습하게 하고자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宣德帝는 선행에 힘쓰고 聖道를 구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 매우 가상하게 생각한다면, 다만 산천의 거리가 멀고 기후가 서로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정을 양쪽이 다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본국에서 학습에 힘쓰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지금 왕에게 『五經·四書大全』과 『性理大全』 각 1부와 『通鑑綱目』 2부를 보내 이를 자제 교육에 쓰게 하였다.¹¹⁾

당시 조선에서 자제들을 명나라에 파견하여 유학시킬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관련 서적을 하사하는 형식으로 마무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조선에도 제1차로 입수한 〈三部大全〉을 저본으로 강원도 등 삼도에서 판각 간행하여 민간에 보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전본의 수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국내의 실정을 모르고 있어 명 황제는 단순히 서적을 하사하는 명분으로 자제들의 유학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명나라 영락제의 칙명으로 胡廣 등이 편찬 간행한 〈삼부대전〉은 영락제와 선덕제 시기에 3차에 걸쳐 하사하여 세종 대에

10) 世宗實錄, 世宗8年(1426) 11月24日, 進獻使僉摠制金時遇, 奉勅而回, 上出迎于慕華樓如儀, 其勅曰朝鮮國王, 今賜王五經·四書及性理大全部 共一百二十冊, 通鑑綱目一部 計十四冊, 至可領也, 上御慶會樓下宴慰, 仍賜鞍馬, 百官行賀禮, 初尹鳳之廻也, 上請四書五經·性理大全部·宋史等書籍, 時遇之還, 帝特賜之.

11) 世宗實錄, 世宗15年(1433) 12月13日, 千秋使朴安臣, 傳寫齋來勅書二道, 先使通事金玉振馳啓, 其一覽奏, 欲遣子弟, 詣北京國學或遼東鄉學讀書, 且見務善求道之心, 朕甚嘉之, 但念山川脩遠, 氣候不同, 子弟之來, 或不能久安客外, 或父子思憶之情, 兩不能已, 不若就本國中務學之便也, 今賜王五經四書大全部·性理大全部·通鑑綱目二部, 以爲教子弟之用, 王其體朕至懷.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3.2 世宗代 〈四書大全〉의 刊行

중국 명나라에서 편찬 간행한 〈三部大全〉이 조선에 처음으로 입수된 것은 세종 1(1419)년 이었다. 세종은 부왕 태종의 뜻에 따라 갑자기 왕위에 등극하였기 때문에 부왕이 생존해 있던 즉위 초기에는 국정을 주도하지 못했다. 즉위 4년 만에 상왕 太宗이 승하하자 본격적으로 전권을 행사하여 국정을 운용하였는데,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유교경전에서 古例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四書〉와 〈五經〉의 간행과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세종 6(1424)년에 부왕 태종이 설치한 鑄字所에서 주조한 庚子字로 인출한 『大學大全』 50여부를 문신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보이고 있다.¹²⁾ 이때 문신에게 반사한 『대학대전』은 명나라에서 영락제가 1415년에 편찬하여 그 이듬해에 판각 간행하여 보급한 〈四書大全〉에 포함되어 있는 경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간행 보급한 大全本의 일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명판 〈사서대전〉본의 판식은 10행 22자본으로 경자자본 11행21자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세종 1(1419)년에 경녕군이 영락제로부터 받아 온 〈사서대전〉을 저본으로 재편하여 金屬活字로 印出한 것으로 직접적인 覆刻本은 아니다. 그러나 이때 庚子字로 인출한 『大學大全』은 한 책도 현

전하지 않고 있으나, 같은 시기에 동일한 활자로 인출한 『論語大全』만이 국립도서관과 규장각에 전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서대전〉 전부를 활자로 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활자 인쇄기술은 하루에 불과數十紙만을 인출할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량의 보급을 위해서는 목판에 판각하여 인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세종은 〈삼부대전〉을 목판으로 인쇄하여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먼저 인쇄에 소용되는 종이를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전라·경상도 감사에게 『性理大全』·〈五經·四書大全〉 등을 인쇄하는데 소용되는 종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인 닥[楮]을 사드려서 충청도는 3천貼, 전라도는 4천첩, 경상도는 6천첩의 종이를 만들어 진상하도록 하였다.¹³⁾

그리고 세종이 참석한 경연에서 檢討官 僕循이 황제가 주신 『性理大全』을 보건데 그 글이 『眞西山甲集』을 모방한 것 같으나, 의논이 정통하고 제설이 구비되어 있어 진실로 학자들이 마땅히 익히 보아야 할 서책이므로 이 책을 간행하여 널리 퍼서 과거에 오를 젊은 선비들로 하여금 習讀하게 하여 性理學을 궁리토록 하고, 또한 성리학에 정통해야만 비로소 능히 크게 통달할 것이라 말하였다.¹⁴⁾ 이처럼 세종 8(1426)년에 이르러 설순 등 조선 유신이 명나라에서 편찬한 〈三部大全〉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를 간행하여 널리 보급할 것을 세종에

12) 世宗實錄, 世宗6年(1424) 2月14日, 分賜鑄字所所印『大學大全』五十件于文臣.

13) 世宗實錄, 世宗7年(1425) 10月15日, 傳旨忠淸·全羅·慶尙道監司, 欲印性理大全·五經四書, 其册紙給價換楮, 忠淸道三千貼·全羅道四千帖·慶尙道六千帖, 造作以進.

14) 世宗實錄, 世宗8年(1426) 12月8日, 御經筵, 檢討官僕循啓曰 臣見皇帝所賜性理大全, 其文似倣於眞西山甲集, 議論精通, 衆說該備, 誠學者所當熟玩也. 願刊行廣施, 使登科年少之儒習讀, 研窮理學. 且爲文章者, 必精於理學, 乃能大達.

게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종은 바로 경상감사에 『性理大全』을 판각할 것을 명하였는데, 『世宗實錄』에 그 이듬해인 세종 9(1427)년에 慶尙道 감사가 새로 판각한 『性理大全』을 바쳤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¹⁵⁾ 그리고 곧이어 세종은 다시 경상과 전라 감사에게 『성리대전』을 판각한 전례에 따라 <五經大全>을 목판에 새겨 진상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경상도 감사에게 지금 『易經』·『書經』·『春秋』의 대전본을 내려 보내니, 『성리대전』의 전례에 의거하여 목판에 새기게 하였으며,¹⁶⁾ 또한 전라도 감사에게 이제 『詩』와 『春秋』(실은 『禮記』)의 大全本을 보내니 『性理大全』의 예를 따라 목판에 새길 것을 하명한 사실이 實錄에서 확인된다.¹⁷⁾ 이와 같이 『성리대전』과 <三經>(易·書·春秋)은 경상도에서 板刻케 하고, 全羅道에는 <二經>(詩·禮記)을 내려 보내 판각케 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삼부대전> 중 『성리대전』과 <오경대전>의 판각을 하명하고, 世宗은 다시 <사서대전>의 판각을 강원감사에게 명하였다. 世宗實錄에 보면 세종 10(1428)년에 강원도 감사가 올린 보고에 <사서대전>을 이미 세 곳에 나누어

板刻케 하였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¹⁸⁾ 이상으로 명나라에서 輸入한 <삼부대전>을 저본으로 조선에서 판각이 일단락되자, 세종은 『성리대전』과 <四書·五經大全>을 판각한 사람에게 차등이 있게 미곡을 내려 주어 치하하였다.¹⁹⁾

이후 三道에서 판각한 책판은 세종 11년 무렵에 모두 주자소로 移運하여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인출해 주었다.²⁰⁾ 당시 책판을 보관하고 있던 주자소는 세종의 부왕인 태종이 1403년에 설치한 왕실출판기관으로 鑄字와 印刷를 전담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 17(1435)년에 각도의 감사에게 내린 傳旨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당시 실록의 기사를 살펴보면 『성리대전』과 <사서·오경대전>은 중국의 여러 선비들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찬술한 서적으로 先儒의 여러 학설을 수집하고 이를 절충하여 편찬한 것으로 성리학의 연원이니 학자들은 마땅히 먼저 강구해야 될 것이라 하면서 명나라 태종 영락제가 보내 준 이후에 이를 저본으로 새로 판각한 책판을 주자소에 보관해 두고 자주 인출해서 여러 臣僚들에게 나누어 주어 널리 보급하였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²¹⁾ 이 내용으로 보아 삼도에서 판각한 책판은 세종 11년 무렵에 모두 주자소로 이운하여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인출해 주었던 것이다.²²⁾ 당시 책판을 보

15) 世宗實錄, 世宗9年(1427) 7月18日, 慶尙道監司, 進新刊性理大全.

16) 世宗實錄, 世宗9年(1427) 9月3日, 傳旨慶尙道監司, 今送大全易·書·春秋, 依性理大全例刊板.

17) 世宗實錄, 世宗9年(1427) 10月28日, 傳旨全羅道監司, 今送大全詩·春秋, 依前送性理大全例刊板.

18) 世宗實錄, 世宗10年(1428) 1月26日, 禮曹啓, 江原道監司報, 四書大全, 已分三處刊板.

19) 世宗實錄, 世宗10年(1428) 12月13日, 賜刊性理大全及經書大全人, 米穀有差.

20) 世宗實錄, 世宗17年(1435) 10月25日, 但外方各官鄉校與窮村僻巷, 曾無一本之藏, 鄉邑有志之士, 雖欲考閱, 無由得見, 誠爲可慮, 今同封各册卷數, 曉諭各官, 如有不干民力, 無弊自備, 欲印置于鄉校者, 暨邑人如有能辦自願印之者, 收其紙以送, 則皆許印送, 如或不願, 不必強使爲之, 其自願者, 亦不必一時盡印諸書, 雖一經一書, 隨其所備紙數, 收納上送.

21) 世宗實錄, 世宗17年(1435) 10月25日, 傳旨各道監司, 性理大全及四書五經大全, 中朝諸儒, 承命撰述之書, 採輯先儒諸說而折衷之, 實理學之淵源, 學者當先講究者也, 太宗皇帝賜與以後, 已曾板刊, 置于鑄字所, 向者印頒臣僚, 期於廣布.

관하고 있던 주자소는 왕실 출판기관으로 주자와 인쇄를 전담해 왔는데, 그 뒤 세조 6(1460)년 5월에 이르러 校書館으로 통합하였다.

교서관은 주자소에 앞서 건국 초기에 설치되어 조선후기까지 존치되어 수많은 서적을 인출하여 보급하였던 출판기관이다. 그런데 陽城君 李承召(1422-1484)가 지은 記文에 세종대에 이르러 명나라 황제가 새로 편찬한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 등의 서적을 내려 주자, 임금이 경상도와 전라도에 명하여 새로 목판에 새겨 본관인 주자소에 보내게 하였다. 이에 新舊의 목판이 구름처럼 쌓여 있어서 인쇄할 때마다 책판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고, 심지어는 목판이 서로 부딪쳐 글자가 마멸된 것이 매우 많아서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北板堂 동쪽에 네 칸의 장판고를 더 세웠으나 여전히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부원군 韓明澮가 서평군 韓繼禧와 남원군 梁誠之에게 板堂이 아직 좁아서 책판을 다 넣을 수가 없어 西板堂 남쪽에 여섯 칸의 판고를 세울 것을 의논하여 정유년 6월에 시작하여 그 해 10월에 준공하게 되어 비로소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던 책판을 체계적으로 수장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²³⁾

이상의 사실로 보아 세종 대에 三道에 분담하여 〈三部大全〉의 판각이 완료되자, 이 冊板을 모두 주자소로 이관하여 필요할 때 마다 需

요가 있는 경서를 인출하여 보급하였으나 현존본은 극히 희귀한 실정이다.

4. 朝鮮時代 〈四書大全〉의 板本 流布

4.1 朝鮮板 〈四書大全〉의 流布 現況

조선에서 〈三部大全〉의 판각은 世宗 9-10(1427-1428)년 사이에 三道에서 분담하여 조성되었으며, 판각이 완료된 직후 책판은 모두 鑄字所로 이관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印出하였다. 그러나 판각 직후에는 이를 담당했던 해당 도의 감사들이 처음으로 인출하여 진상하였던 사례가 보이고 있다. 이는 세종 10년에 경상도 감사 李繩直이 『성리대전』 50권을 진상하니, 문신 2품 이상과 여섯 代言과 집현전 박사 이상에게 하사하고, 또한 춘추관과 성균관에 각각 1부씩 보관하게 하였으며,²⁴⁾ 또한 세종 11년에는 강원도 감사가 〈사서대전〉 50권을 인쇄하여 바치니, 4건은 宗學에 내리고, 3건은 집현전에 내리고, 그 나머지는 문신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²⁵⁾ 그리고 세종 17(1435)년에 제주도의 향교에 『大學』·『中庸』·『論語』·『孟子』·『詩經』·

22) 世宗實錄, 世宗17年(1435) 10月25日. 但外方各官鄉校與窮村僻巷, 曾無一本之藏, 鄉邑有志之士, 雖欲考閱, 無由得見, 誠爲可慮. 今同封各冊卷數, 曉諭各官, 如有不干民力, 無弊自備, 欲印置于鄉校者, 暨邑人如有能辦自願印之者, 收其紙以送, 則皆許印送, 如或不願, 不必強使爲之, 其自願者, 亦不必一時盡印諸書, 雖一經一書, 隨其所備紙數, 收納上送.

23) 『新增東國輿地勝覽』 第2卷, 『京都』 下, 〈校書館〉條.

24) 世宗實錄, 世宗10年(1428) 閏4月1日, 慶尙道監司李繩直, 進性理大全五十件, 分賜文臣二品以上, 六代言, 集賢殿博士以上, 又於春秋館、成均館, 各藏一件.

25) 世宗實錄, 世宗11年(1429) 4月22日, 江原道監司, 印進四書大全五十件, 命下四件于宗學, 三件于集賢殿, 其餘分賜文臣.

『書經』·『禮記』·『易經』·『春秋』 등 <사서·오경대전>과 『性理大全』 각 2건과 『小學』 10건을 하사했다.²⁶⁾ 그 이후 성종 7(1476)년에 『대학』·『중용』 각 40건과 『논어』·『맹자』·『시경』·『서경』·『주역』·『춘추』·『예기』 각 30건, 『성리대전』 5건을 모두를 成均館에 내려 보내도록 하명하였다는 내용이 실록에 보이고 있다.²⁷⁾

이처럼 鑄字所로 책판을 이관한 이후로는 오로지 이곳에서 壬亂 이전까지 인쇄를 전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때 판각한 책판에서 인출한 판본은 유감스럽게도 『大學大全』 1책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후 조선에서는 世宗代 처음 간행한 <四書大全>을 저본으로 전국적으로 수차 복각 간행하였으며, 또한 世宗代 간행한 복각본을 재편하여 活字本 또는 木板本으로도 간행되었는데, 현재 한국에 현전하고 있는 판본은 <표 3>과 같다.

조선시대 世宗代 1428년 강원도에서 판각하여 간행한 <四書大全>을 저본으로 복각하거나 再編하여 간행하는 방식으로 전 시기 동안

전국에서 간행된 판본은 모두 116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세종 대 初刊本을 그대로 覆刻 또는 再覆刻한 계통은 50종이며, 초간본을 재편하거나 축약하여 활자나 목판으로 간행한 變容本 계통은 66종에 이르고 있다.

4.2 內府刻本 覆刻 系統의 流布 分析

조선시대 世宗 10(1428)년에 명나라 內府刻本 <四書大全>을 江原道에서 복각하여 그 다음해에 印出하여 보급한 朝鮮板을 저본으로 임란 이후 光海朝에 成均館에서 그대로 다시 복각한 이후 각도의 監營과 民間 등에서 복각하여 유통된 판본의 세부 현황은 별도의 <附錄>과 같다.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에 明 內府刻本을 그대로 覆刻하거나 복각한 판본을 후대에 재차 覆刻하여 간행된 판본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유포되고 있는 <四書大全> 현전본의 유포 현황은 <표 4>와 같다. 다만 이 표는 현재 가장 많은 간행횟수를 보이는 『中庸大全』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 3> 朝鮮時代 刊行된 <四書大全>의 現傳本 現況

구분	四書大全								總計
	論語大全		孟子大全		大學大全		中庸大全		
覆刻本	11		10		13		16		50種
變容本	論語大全		孟子大全		大學大全		中庸大全		66種
	活字本	木板本	活字本	木板本	活字本	木板本	活字本	木板本	
	8	10	6	9	5	9	9	10	
小計	30		25		27		35		116種

26) 世宗實錄, 世宗17年(1435) 9月21日, 賜大學·中庸·論語·孟子·詩·書·禮記·易·春秋, 性理大全各二件, 小學十件于濟州鄉校.

27) 成宗實錄, 成宗7年(1476) 11月5日, 命藏大學·中庸各四十件, 論語·孟子·詩·書·周易·春秋·禮記各三十件, 性理大全五件于成均館.

〈표 4〉 朝鮮時代 刊行된 〈四書大全〉 覆刻本 系統의 現傳本 現況

順位	刊行事項			刊記	四書大全			
	板刻年	板刻地	板刻處		論語大全	孟子大全	大學大全	中庸大全
01	1429	漢城	鑄字所		×	×	○	×
02	1610	漢城	成均館	庚戌6月日成均館開刊	○	○	○(己酉)	○
03	1612	咸興	咸興府	萬曆40年咸興府開刊	×	○	○	○
04	1686	漢城	成均館	丙寅4月日成均館重刊	○	○	○	○
05	1691	咸興	咸興府	辛未月日咸營重刊 辛未夏監營分付鏡城府開刊	○	×	×	○(鏡城)
06	1716	陽州	北漢城	丙申3月北漢城開刊	×	×	×	○
07	1726	咸興	咸營	丙午孟秋咸鏡監營開刊	×	×	○	○
08	1737	大邱	嶺營	丁巳正月嶺營重刊	○	○	×	○
09	1743	陽州	北漢城	壬戌初秋北漢重刊	○(癸亥)	×	×	○
10	1745	寧邊	寧邊府	乙丑4月寧邊府開刊	○	○	○	○
11	1745	大邱	嶺營	乙丑4月日嶺營重刊	○	○	○	○
12	1760	大邱	嶺營	庚辰7月嶺營重刊	○	○	○	○
13	1781	大邱	嶺營	辛丑5月嶺營重刊	×	×	○	×
14	1798	大邱	嶺營	戊午5月嶺營重刊	○	○	○	○
15	1808	大邱	嶺營	戊辰6月嶺營重刊	×	×	×	○
16	1810	全州	河慶龍	歲庚午仲春開刊 (全州府河慶龍藏板)	○	○(豐浦)	○	○
17	1874	漢城	武橋	甲戌孟秋武橋新刊	×	×	○	○
18	1916	全州	七書房	大正5全州	○	○	○	○
合計					11종	10종	13종	16종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世宗代에 명나라로부터 〈四書大全〉을 입수하여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다시 간행된 판본은 대략 18회 이상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판본은 모두 50종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論語大全』은 모두 11종, 『孟子大全』은 모두 10종, 『大學大全』은 모두 13종, 『中庸大全』은 모두 16종이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초간본을 제외하고 후대 간행된 판본은 刊記가 대부분 干支로만 기재되어 있어 판각시기를 정확히 고증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世宗代 初刻된 〈四書大全〉 冊板이 임란을 거치면서 모두 亡失되었기 때문에 이후 成均館에서 '庚戌'과 '丙寅'의 2차에 걸쳐 初刊本을 저본으로 覆刻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경술본은 '開刊'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병인본은 '重刊'으로 표기되어 있어 庚戌本이 먼저 開刊되고 이후 丙寅本이 重刊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肅宗實錄』에 肅宗 10(1684)년에 成均館에서 아뢰기를 〈四書〉와 〈三經〉을 비롯하여 『朱子大全諺解』, 『心經』, 『近思錄』을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고,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동일본에는 康熙 25(1686)년에 內賜한 기록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康熙

25年'은 바로 '丙寅'에 해당하므로 丙寅本은 이때 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庚戌本은 淑明大圖書館에 소장하고 있는 동일본에 康熙 11(1610)년에 丙寅本의 기록이 보이고 있어 바로 1610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大學大全』만은 '己酉10月'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전 해인 1609년에 판각 간행되었다.

다음으로 함경도 함흥부에서 '辛未'에 『論語大全』을 판각하였는데, 동시에 경성부에서 『中庸大全』을 분담하여 판각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때 『大學大全』도 함께 판각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북한산성에서 병신과 임술 2차에 걸쳐 판각되었는데, 간기가 병신본에는 '開刊'으로 임술본에는 '重刊'으로 기재되어 있어 판각의 선후를 짐작할 수 있다. 병신본은 현재 『中庸大全』만 발견되었으나, 적어도 『大學大全』도 동시에 板刻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술본 역시 『中庸大全』만 유전하고 있으나, 『논어대전』은 다음해인 '癸亥'에 판각한 간기가 있는 판본이 연세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이 무렵 『孟子大全』과 『大學大全』도 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도 감영인 嶺營에서는 적어도 6차 이상 판각되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干支의 연대를 확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丙

賜 記錄과 冊板目錄의 수록 내용을 통해 대부분 18세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四書大全>이 18세기에 가장 많은 간행 횟수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무관치 않은 현상으로 보인다.

그밖에 寧邊府와 全州府에서 乙丑과 丙午에 開板된 판본이 現傳하고 있는데, 영변부에서 을축년에 간행한 판본은 奎章閣과 東國大圖書館 등에 <四書大全>이 모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전주부에서 丙午(1810)년에 간행한 판본은 간기에 이어 '全州府河慶龍藏板'이란 기록에 의해서 坊刻本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四書大全> 가운데 『孟子大全』이 빠져 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인 丁卯(1807년)에 豐沛(지금의 全州)에서 간행한 『孟子大全』이 유통되고 있는데, 아마 河慶龍에 의해 <四書大全>의 일부로 판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世宗代 간행된 초간본을 저본으로 조선시대에 복각 또는 재복각하여 간행한 판본 가운데 현존본은 모두 50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板刻時點을 기준으로 시대별로 구분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世宗代 15세기 초간본 1종을 포함하여 조선시대 간행된 <四書大全> 판본은 모두 50종으로, 이를 세기별로 시대를 구분한 결과 18세기에 간행된 판본이 전체 절반에 달

<표 5> 朝鮮時代 刊行된 <四書大全> 覆刻本の 時代別 分布現況

區分	15世紀	17世紀	18世紀	19世紀	20世紀
論語大全	0	3	6	1	1
孟子大全	0	3	5	1	1
大學大全	1	3	6	2	1
中庸大全	0	4	8	3	1
합계	1	13	25	7	4

〈표 6〉 朝鮮時代 刊行된 〈四書大全〉 覆刻本の 地域別 分布現況

區分	京畿道	慶尙道	全羅道	平安道	咸鏡道	合計
論語大全	2	5	2	1	1	11
孟子大全	2	4	2	1	1	10
大學大全	4	4	2	1	2	13
中庸大全	5	5	2	1	3	16
合計	13	18	8	4	7	50

하는 25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17세기의 판본이 13종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世宗 때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 17-18세기 동안에 전체 50종 중 38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어떠한 간행현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현전본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구분해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전국에서 간행된 〈四書大全〉의 간행분포를 살펴보면, 경상도 지역에서 18종을 간행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경기지역에서 13종이 간행되어 경상과 경기 두 지역에서 전체 63%를 간행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지역의 함경도에서도 7종을 간행하고 있어 전라도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시대 간행 유포되었던 〈四書大全〉에 대해서 현전하는 실물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지역적으로 慶尙道와 京畿道(漢城 포함)에서 가장 많은 간행 횟수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시대별로는 18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結 言

이상에서 중국 명나라 영락제의 칙명으로 胡廣 등이 편찬하여 명나라 內府에서 간행한 〈四書大全〉을 조선에서 入手하여 세종이 처음으로 간행한 이후 전국에서 간행 보급하여 유포된 현상을 살펴 본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영락제가 칙명으로 호광 등이 편찬하여 내부에서 간행한 〈三部大全〉 중 일부가 현재 중국과 한국에 유전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는 『詩傳大全』에는 『欽文之璽』라는 皇寶와 『朝鮮王寶』라는 御寶가 安寶되어 있으며, 중국의 江西省圖書館 所藏本에도 동일한 황제인이 날인되어 있어 명 황제가 특별히 下賜했던 서적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명나라 영락연간에 내부에서 간행한 〈삼부대전〉은 세종 1(1419)년에 敬寧君에 의해 처음으로 한국에 전래되었으며, 그 후 세종 8(1426)년과 세종 15(1433)년에 걸쳐 추가로 두 차례 더 입수되어 세종 대에 모두 3차에 걸쳐 전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조선 세종은 명나라에서 3차례 입수된 서적 중 敬寧君 李裊가 가지고 귀국한 제1차 전래본을 저본으로 먼저 세종 6(1424)년

에 <四書大全>을 庚子字로 刊印하였으며, 또한 <삼부대전>은 제1차 입수본을 저본으로 世宗 9-10(1427-1428)년 사이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지방에 각각 分擔하여 판각을 완료하였다.

넷째, 세종 대에 판각이 완료된 <사서대전> 책판은 모두 중앙의 鑄字所로 이관하여 서적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쇄하여 보급하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판본은 『論語大全』과 『大學大全』 일부에 불과한 실정으로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섯째, 명나라 內府 宮廷本 <四書大全>이 조선에 전래된 이후 유포 현상을 조사 분석한 결과, 명나라 宮廷本을 그대로 복각한 판본이 조선에서 대략 18회 이상 간행되었으며, 그 중 현재 50종만이 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여섯째, 現存本 50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時代別로는 임란 이후 17-18세기에 전체 75%를 차지하는 38종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으며, 또한 地域別로는 京畿와 慶尙道 지방에서 전체 63%를 차지하는 31종이 간행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이러한 간행 현상은 대체로 壬亂으로 책판과 서책이 급속도로 亡失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보충하기 위해 주로 서적의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왕실이 있는 京畿와 慶尙의 중심지인 慶尙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간행 보급되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중국에서는 청나라 고염무 등이 大全本의 간행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였으나, 그 무렵 조선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어 양국의 대조적인 모습이 주목된다.

참 고 문 헌

- [1] 『朝鮮王朝實錄』.
- [2] 김문식. 2006. 朝鮮時代 中國書籍의 輸入과 刊行: 四書·五經大全을 중심으로. 『奎章閣』, 29: 121-140.
- [3] 唐潤熙. 2007. 韓國所藏 中國本 <四書大全> 板本 小考. 『中國語文學論文集』, 43: 375-394.
- [4] 安賢珠. 2007. 『朝鮮時代 <四書>의 板本 研究』. 博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大學院.
- [5] 송정숙. 2000. 한국에서의 「論語」의 수용과 전개. 『書誌學研究』, 20: 359-387.
- [6] 송일기, 정왕근. 2004. 朝鮮時代に 간행된 干支本 大學의 刊年推定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193-213.
- [7] 우정임. 2000. 朝鮮初期 書籍輸入·刊行과 그 性格: 性理學書를 중심으로. 『釜大史學』, 24: 39-69.
- [8] 李康範. 2012. 明代 五經大全의 纂修의 배경과 經學史的 意義. 『中國語文學論文集』, 74:

431-457.

- [9] 全在東. 2008. 四書大全의 收容과 그 意味. 『東洋禮學』, 20: 89-123.
[10] 鄭亨愚. 1989.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行 廣布. 『東方學志』, 63: 1-2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2] Kim, Munsik. 2006. "The importation and publication of Chinese books in Joseon dynasty." *Kyuganggak*, 29: 121-140.
[3] Dang, Yunhui. 2007. "The Study of the Editions of 〈The Assembly of Annotations about Four Books〉 Existed in Korea." *Kore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43: 375-394.
[4] Ahn, Hyeonju. 2007. *A study on Various Editions of the Four Books in Chosun Dynasty*. doctorate thesis of graduate school Jeon Nam University.
[5] Song, Jeongsuk. 2000.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the Sayings of Confucius(論語) in Kore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20: 359-387.
[6] Song, Ilgi and Jeong, Wanggeun. 2004. "A Study on Printed Books of Great Learn(大學) Caved by Old Years in Chosun Dynas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193-213.
[7] Woo, Jeongim. 2000. "A Character of Book's Importing and Publication in the early Choson Dynasty." *Historical studies in Busan University*, 24: 39-69.
[8] Lee, Kang-bum. 2012. "The Social & Political Backgrounds of the Complete Work of Five Confucian Classics(五經) in Ming Dynasty and its Historical Meaning i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CHINESE LITERATURE*, 74: 431-457.
[9] Jeon, Jaedong. 2008. "The acceptance of Saseodaejeon and its signification." *The study of Asia courtesy*, 20: 89-123.
[10] Jeong, Hyeong-u. 1989. "The Introduction to Korea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Five Classics and Four Books of Confucianism'(五經·四書大全) and the dissemination of its wooden carvings for printing." *DongBangHaKji*, 63: 1-27.

[附錄] 朝鮮板〈四書大全〉現傳本書目

1. 論語大全

刊行事項			板式事項					註記	調査對象本	
刊行地	刊行處	刊行年	邊欄	半郭(cm)	界線	行字	魚尾		所藏處	請求番號
漢城	鑄字所	1429	雙邊	26.0×17.0	有	10/22	大黑口 內向黑		未傳	
漢城	成均館	1610	單邊	25.5×19.2	有	10/22	內向黑, 2葉花紋	庚戌(1610)6月日成均館開刊	송일기	개인
漢城	成均館	1686	單邊	24.4×16.9	有	10/22	2葉花紋	丙寅(1686)4月日成均館重刊	전남대 안동대	cc114논63ㅎ 148.3호16ㄴf
咸興	咸營	1691	雙邊	24.5×18.3	有	10/22	2葉花紋	辛未(1691)月日咸營重刊	성암 송일기	1-251 개인
大邱	嶺營	1737	雙邊	23.2×18.2	有	10/22	2葉花紋	丁巳(1737)正月嶺營重刊	원광대	ㅎ551논ㄱ
陽州	北漢	1743	雙邊	23.0×18.5	有	10/22	2葉花紋	癸亥(1743)五月北漢重刊	연세대	181.4 논어대판복
寧邊	寧邊府	1745	單邊	23.8×18.5	有	10/22	2葉花紋	乙丑(1745)4月寧邊府開刊	동국대	181.2183 논63대
大邱	嶺營	1745	雙邊	23.8×18.2	有	10/22	2葉花紋	乙丑(1745)4月日嶺營重刊	규장각 만송	181.1-J868na A8-A1V
大邱	嶺營	1760	雙邊	24.5×18.4	有	10/22	2葉花紋	庚辰(1760)7月嶺營重刊	낙육재	고서목록
大邱	嶺營	1798	雙邊	24.5×18.4	有	10/22	2葉花紋	戊午(1798)5月嶺營重刊	규장각	奎증522
全州	河慶龍	1810	雙邊	23.4×18.4	有	10/22	2葉花紋	歲庚午(1810)仲春開刊	송일기	개인
全州	七書房	1916	雙邊	23.5×18.4	有	10/22	2葉花紋	上同	국립도 서관	한09다3-4

2. 孟子大全

刊行事項			板式事項					註記	調査對象本	
刊行地	刊行處	刊行年	邊欄	半郭(cm)	界線	行/字	魚尾		所藏處	請求番號
漢城	鑄字所	1429	單邊	26.0×17.0	有	10/22	大黑口, 內向黑		未傳	
漢城	成均館	1610	單邊	25.5×19.2	有	10/22	內向黑, 2葉花紋	庚戌(1610)6月日成均館開刊	雅丹 文庫	148.4호15ㄱㅅ
咸興	咸興府	1612	雙邊	22.2×16.7	有	10/22	大黑口, 黑魚尾	萬曆40(1612)年咸興府開刊	고대 만송	A9 A1R

刊行事項			板式事項					註記	調査對象本	
刊行地	刊行處	刊行年	邊欄	半郭(cm)	界線	行/字	魚尾		所藏處	請求番號
漢城	成均館	1686	雙邊	24.5×17.9	有	10/22	2葉花紋	丙寅(1686)四月日成均館重刊	만송 송일기	A9 A1X 개인
大邱	嶺營	1737	雙邊	23.9×18.3	有	10/22	2葉花紋	丁巳(1737)正月嶺營重刊	한중연	A9E-5D
大邱	嶺營	1745	雙邊	23.5×18.5	有	10/22	2葉花紋	乙丑(1745)四月嶺營重刊	만송 국립도	A9 A1T K11239-102
寧邊	寧邊府	1745	單邊	24.5×19.0	有	10/22	2葉花紋	乙丑(1745)四月日寧邊府開刊	규장각	1755
大邱	嶺營	1760	雙邊	23.6×18.0	有	10/22	2葉花紋	庚辰(1760)七月嶺營重刊	경북대	181.2184 맹71ㄱ(철26)
大邱	嶺營	1798	雙邊	23.0×18.3	有	10/22	2葉花紋	戊午(1798)五月嶺營重刊	계명대	고180.84호광스
全州	豐沛	1807	雙邊	23.6×18.5	有	10/22	2葉花紋	歲在丁卯(1807)豐沛新刊	송일기	개인
全州	七書房	1916	雙邊	24.3×19.5	有	10/22	2葉花紋	歲在丁卯豐沛新刊	경북대	古181.2184맹71ㄱ

3. 大學大全

刊行事項			板式事項					註記	調査對象本	
刊行地	刊行處	刊行年	邊欄	半郭(cm)	界線	行/字	魚尾		所藏處	請求番號
漢城	鑄字所	1429	雙邊	25.7×16.8	有	10/22	大黑口, 內向黑		송일기	개인
漢城	成均館	1609	雙邊	24.8×18.6	有	10/22	2葉花紋	己酉(1609)十月成均館開刊	규장각	551
咸興	咸興府	1612	雙邊	24.5×17.1	有	10/22	大黑口, 內向黑	萬曆40(1612)年咸興府開刊	규장각 성암	550 1-219
漢城	成均館	1686	雙邊	22.6×18.5	有	10/22	2葉花紋	丙寅(1689)四月成均館重刊	송일기	개인
咸興	咸營	1726	雙邊	27.4×18.4	有	10/22	2葉花紋	丙午(1726)孟秋咸鏡監營開刊	규장각	552
大邱	嶺營	1745	雙邊	22.8×18.3	有	10/22	2葉花紋	乙丑(1745)四月嶺營重刊	송일기	개인
寧邊	寧邊府	1745	雙邊	25.7×18.1	有	10/22	2葉花紋	乙丑(1745)四月寧邊府開刊	규장각	542
大邱	嶺營	1760	雙邊	22.0×18.3	有	10/22	3葉花紋	庚辰(1760)七月嶺營重刊	계명대	180.81호광ㄷ
大邱	嶺營	1781	雙邊	23.1×18.1	有	10/22	2葉花紋	辛丑(1781)五月嶺營重刊	규장각 한중연	1558 A9B-2F
大邱	嶺營	1798	雙邊	23.0×18.8	有	10/22	2葉花紋	戊午(1798)五月嶺營重刊	송일기	개인
全州	河慶龍	1810	雙邊	23.0×18.1	有	10/22	2葉花紋	庚午(1810)仲春全州府河慶龍藏板	규장각	규중451
漢城	武橋	1874	單邊	16.5×13.5	有	10/22	2葉花紋	甲戌(1874)孟秋武橋新刊(論語刊記)	인수 문고	1-81
全州	七書房	1916	雙邊	23.2×18.2	有	10/22	2葉花紋	大正5(1916)全州七書房(河慶龍板)	국립도	古朝09-가10-3

4. 中庸大全

刊行事項			板式事項					註記	調査對象本	
刊行地	刊行處	刊行年	邊欄	半郭(cm)	界線	行字	魚尾		所藏處	請求番號
漢城	鑄字所	1429	雙邊	26.0×17.0	有	10/22	大黑口, 內向黑		未傳	
漢城	成均館	1610	雙邊	26.1×18.5	有	10/22	2葉花紋	庚戌(1610)三月成均館開刊/康熙11內賜	숙대	181.2호광증-라
咸鏡	咸興府	1612	雙邊	24.1×16.8	有	10/22	大黑口 內向黑	萬曆40(1612)年咸興府開刊	국립도	古朝09-나9
漢城	成均館	1686	雙邊	25.0×18.0	有	10/22	2葉花紋	丙寅(1686)四月日成均館重刊 康熙25(1686)內賜	한중연	A9C-1
鏡城	鏡城府	1691	雙邊	26.5×17.9	有	10/22	2葉花紋	辛未(1691)夏監營分付鏡城府開刊	경북대 충남대	181.2182중66× 中庸-494
京畿	北漢城	1716	雙邊	24.8×18.4	有	10/22	2葉花紋	丙申(1716)三月北漢城開刊	국립도 규장각	1238-108 2477
咸興	咸營	1726	雙邊	27.5×18.0	有	10/22	2葉花紋	丙午(1726)孟秋咸鏡監營開刊	규장각	709
大邱	嶺營	1737	雙邊	24.0×18.0	有	10/22	2葉花紋	丁巳(1737)正月嶺營重刊	고려대	만송 A7-A1P
陽州	北漢城	1742	雙邊	24.3×18.5	有	10/22	2葉花紋	壬戌(1742)初秋北漢重刊	송일기	개인
寧邊	寧邊府	1745	單邊	22.7×16.4	有	10/22	2葉花紋	乙丑(1745)四月寧邊府開刊	규장각	1723
大邱	嶺營	1745	雙邊	24.6×18.5	有	10/22	2葉花紋	乙丑(1745)四月嶺營重刊	전남대	oc113중11ㅎ
大邱	嶺營	1760	單邊	23.5×18.4	有	10/22	2葉花紋	庚辰(1760)七月嶺營重刊	영남대	148.2중용ㄹㄱ
大邱	嶺營	1798	雙邊	24.2×18.5	有	10/22	2葉花紋	戊午(1798)五月嶺營重刊	한중연	A9C-1C
大邱	嶺營	1808	雙邊	23.7×18.3	有	10/22	2葉花紋	戊辰(1808)六月嶺營重刊	중앙대	180.2182중용
全州	河慶龍	1810	雙邊	22.7×18.3	有	10/22	2葉花紋	庚午(1810)仲春河慶龍藏板	송일기	개인
漢城	武橋	1874	單邊	16.4×13.5	有	10/22	2葉花紋	甲戌(1874)孟秋武橋新刊	인수 문고	1-90
全州	七書房	1916	雙邊	24.6×18.2	有	10/22	2葉花紋	大正5(1916)京城	국립도	한-09-나2-6